

해경·해군 父女 바다지킴이의 특별한 만남

목포해경 조승래 경위·제3함대 조현진 하사

전남 서남해역 같은 바다를 지키는 50대 해경 아버지와 20대 해군 딸이 아버지의 날을 맞아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부녀는 서로가 소속된 합정을 타고 바다를 바라보며 “면발치의 작은 불빛 함정에 아버지·딸이 승선해 있지 않을까”하며 그리움을 달랬지만 아버지 날을 통해 만남이 성사됐다.

해군 제3함대 사령부는 아버지의 날을 앞두고 ‘가족 부대 방문의 날’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목포해경 흙산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조승래(56) 경위는 부대를 방문해 군복무 중인 딸 조현진(21) 하

사를 만나 근무지를 둘러보며 모처럼 팔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부인 만남이 힘들어져 이들은 먼 바다만 바라보며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했다.

지난 2020년 조 경위의 경비정이 3함대에서 수리를 받고 있을 때도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인 접촉 금지, 합 출동 등의 이유로 이들은 만나지 못했다.

조 하사는 해군을 거쳐 해양경찰이 된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는 꿈을 품고 해군 부사관의 길을 선택했다.

처음 ‘광주함’에 배정됐을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다. 같은 바다



목포해경 조승래 경위와 해군 3함대 조현진 하사. /해군 3함대사령부 제공

을 자연스럽게 꾸게 됐다”며 “부사관 교육대대에서 직별을 선택할 때 항정 간판을 선택한 이유도 아버지 영향이 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바다로 출동을 나가면 ‘아버지가 반대편에 계시려나. 함장님께서 해경 경비정을 식별하고 가까이로 항해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자주 했었다”며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생신, 명절, 쉬는 날에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 뿐이다”고 이야기했다.

조 경위·조 하사는 “부녀가 해경과 해군으로서 서남해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서로의 손을 잡았다.

/목포=박종배 기자

포토뉴스



금호평생교육관 ‘청렴의 날’ 행사 추진

금호평생교육관이 9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의 날’ 행사를 가졌다. 9일 금호평생교육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청렴문화 확산 의지를 외부에 알리고 직원들의 자율적인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날 금호평생교육관은 이용자들에게 청렴 홍보 문구(금호평생교육관의 날씨는 오늘도 청렴)를 인쇄한 물티슈를 제작해 배부했다.



광양시 종마동, 어버이날 '孝' 나눔 꾸러미 전달

광양시 종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버이날 맞아 소고기미역국 외 8종으로 3만 원 상당 간편식으로 구성된 '효' 나눔 꾸러미를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식료품은 중부남·여의용소방대 민간 사회인전망(㈜인랜드컴퍼니)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60세대(180만원 상당)에 후원물을 기탁했다.

광양제철소 여수 묘도 주거환경개선 지원



제로 한 벽화를 그리기로 했다.

신창동 주민자치회와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4월 말부터 벽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은 물론 산뜻한 분위기를 더해줄 다양한 벽화들이 이 마을 곳곳을 채웠다. 마을을 찾은 시민들의 ‘인생샷’ 욕구를 채워줄 트릭아트 포토존도 만들어졌다.

특히, 마을의 학부모, 아이들은 손 뺨alle, 닦 모이주기 등 옛 시골 마을의 풍경을 담은 벽화를 그렸다.

마을 주민 김경호 씨는 “아름다운 벽화로 낡고 고립된 이미지를 벗겨 됐다”며 “우리도 더 특별해진 것 같다. 너무 뿌듯하다”고 전했다.

/이동기 기자

광양제철소는 여수시 묘도 운동마을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입주식을 가졌다.

광양제철소는 기업시민으로서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묘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광양제철소는 먼저 묘도동 5개 마을 이웃들 중에서 도움의 손길이 가장 시급한 20세대를 선정하고, 이를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집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이후 포스코1%나눔재단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도배·장판 등을 말끔하게 교체하고 노후된 방충망 대신 벌레, 면지, 꽃가루 등으로부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차단 효과가 큰 미세먼지 방충망으로 새로 설치했다.

입주식이 끝난 후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은 코로나19 등 감염 예방 및 악취 제거에 탁월한 EM 방역과 해안가 정화활동을 실시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최지영 제 선부장은 “묘도 이웃들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제로타리 진도클럽회, 가정의 달 맞이 봉사활동

국제로타리 진도클럽회가 군내면 장마을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1일 실시한 봉사활동에는 30여 명의 회원과 재능기부자, 면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독거노인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창호, 싱크대 교체, 회장실 개보수 등으로 희망의 불씨를 전달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무안소방서, 롯데아울렛·롯데마트와 MOU 체결



안전문화 확산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사회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인단체협?홍보장소 제공 ▲임체적 홍보활동 및 웹페인 홍보 동참 ▲생명 보호 및 안전 최우선 원칙 등이다.

박의승 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순천교육청Wee센터, 사례슈퍼비전 운영

얽힌 마음, 공감으로 푸는 시간…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순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Wee 전문상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사례슈퍼비전을 운영한다.

사례슈퍼비전은 학교부적응, 학대, 자살 및 자살시도 등의 심리적 위기 청소년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Wee상담인력의 전문성 증진을 목표로 운영된다.

올해는 정신의학전문의와 상담전문가를 슈퍼바이저로 초청해 현장

중심의 사례 맞춤형 슈퍼비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Wee전문상담인력은 각 분야의 전문가 슈퍼비전과 동료 피드백을 통해 상담의 방향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상담 역량과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

Wee센터 사례슈퍼비전에 6년째 참석하고 있는 Wee클래스 김00 전문상담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 개입에 막막함이 있었는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슈퍼비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순천=조준의 기자

신창동 매결마을 따뜻한 정 담은 벽화로 새 단장

“아름다운 벽화로 낡고 고립된 이미지 탈피”



광산구 신창동의 오랜 동네인 매결마을이 공동체의 정과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벽화마을로 거듭났다.

2022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매결마을 벽화 조성 사업이 완료된 것. 벽화 조성은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결정한 신창동 마을의 의제에서 출발했다.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주민들은 250m에 달하는 마을 골목길과 경로당 주변에 매결마을을 상징하는 ‘매화’와 농촌의 ‘따뜻한 정’을 주

특히, 마을의 학부모, 아이들은 손 뺨alle, 닦 모이주기 등 옛 시골 마을의 풍경을 담은 벽화를 그렸다.

마을 주민 김경호 씨는 “아름다운 벽화로 낡고 고립된 이미지를 벗겨 됐다”며 “우리도 더 특별해진 것 같다. 너무 뿌듯하다”고 전했다.

/이동기 기자

강진군가족센터, 가족사랑 다(多)양하게 표현해요

‘사랑愛 The하기 감사愛’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강진군가족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로 서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

현하고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및별이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간의 적극적인 육아참여 및 건강한 가족활동을 위해 카네이션케이크 및 어몽어스케이크 만들기와 다육테라리움 등 가족 간의 협력으로 이뤄 내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또한 오는 20일 제15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가족내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다문화음식체험’으로 ‘서로가 더 가까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진군가족센터는 생애주기별 가족친화 및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진=한홍수 기자

김영만 시인, 시집 ‘맑은 달꽃’ 출간

광양 종마동 소재 MG갤러리서 출판 기념식



광양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만 시인의 네 번째 시집 ‘맑은 달꽃’이 출간됐다.

도서 출판 ‘숨’에서 발간된 해당 시집은 총 7부, 131쪽으로 꾸며졌다. 김영만 시인의 시에서 ‘시의 묘사는 언어를 통해 감성을 적시는 연주’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적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예술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감이나 감수성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현실의 모습에 언어의 웃을 입혀 나름의 고유한 시적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 평론가의 견해다.

해당 시집의 발문을 쓴 김남태 전

MBC 편성국장은 “김영만 시인은 시의 가장 기본 요소인 언어의 회화성을 잘 구사하고 있다. 시어를 표현함에 있어 눈에 보이듯이 그려내는 회화성을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 김 시인의 묘사는 자신의 감상이나 감정을 뒤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기술하고 있다. 즉, 현실 속 장면, 혹은 사건의 정황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면서 시적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평했다.

김영만 시인은 광양 출신으로 1995년 문학전문지 계간 문학춘추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와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출판기념식은 11일 종마동에 자리한 광양시 MG새마을금고 3층 MG갤러리에서 열린다. 가수 한태진, 정하윤, 민구수, 서동진, 이서형, 김종관, 문자영, 별이와 세잎클로버 밴드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광양=조준의 기자

수완고 ‘교과통합 탐구기행 實事求是’

부안 반계서당·곰소염전·조정래 아리랑 문학관 등 방문



수완고등학교가 지난 7일 희망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교과통합 탐구기행 實事求是’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9일 수완고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수완고 교장인 “實事求是(시설에 입각한 진리 탐구)”에 걸맞은 학생 참여형 현장답사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실학의 시조격인 단계 유형원 선생(1622~1673) 탄신 400주년을 맞아 부안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반계서당 조입에 세워진 ‘實事求是’ 탑 앞에서 실학의 시대를 찾았다.

/김도기 기자